

슈퍼맨이 되고 싶은 사나이



설계사 영업 수기

- 만성 신부전증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설계사로 정착한 사례
-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 달려갈 수 있는 슈퍼맨이 되고 싶습니다.

나른한 주말, 토요일 오후.

눈이 반쯤 감긴 내 눈 앞에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아내와 열심히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아들, 그리고 통탕통탕 아무렇게나 피아노를 치는 딸아이의 뒷모습이 들어온다. 이 와중에도 손에서 놓지 않는 핸드폰을 물끄러미 다시 바라보다가 나는 다시 달콤한 오후의 잠 속으로 빠져든다. 꿈속으로 걸어가는 나를 둘러싼 공기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어떤 행복감이다. 긴 터널을 거쳐 지금 이곳, 나를 둘러싼 것들은 견고해져 갔다. 어쩐지 이 꿈은 내 지난 역사를 되짚을 것 같은 느낌이다. 행복감과 함께 그간 겪었던 일들의 복기가 조금은 피로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래, 오랜 만에 다시 그 길을 돌아가 보자.’

지금 왜 행복할 수 있는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 잠을 잘 수 있는지.

지금 돌아가 보자.’

20대를 통째로 삼킨 단어, 만성신부전

가족들이 모이면, 나는 형제들 중에 어김없이 최고학력자가 된다. 전문대를 겨우 졸업한 내가 최고학력자가 될 만큼 우리 집 형편은 말할 것이 못되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집안에서 제일 좋은 대우를 받으며 자란 나에게 거는 홀어머니의 기대도 컸다. 35살 청상과부로 2남 4녀의 자녀들과 험한 세상을 헤쳐 갔을 어머니의 삶에 감히 내 삶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머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커가는 내 짐도 그리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각종 자격증을 따고, 빨리 취업을 해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군대부터 다녀 오리라 마음먹었다. 무엇보다 건강만큼은 자신했던 나에게 고혈압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딱지를 확인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신검 때는 물론 군 생활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간식을 위해 헌혈을 하려고 해도 늘 이놈의 혈압이 문제였다. 하지만 당장은 간식을 먹지 못하는 불편 밖에는 없었기에 아쉬움만 삭이면서 돌아섰다. 그러나 짐화된 불행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제대 후 식품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정규직의 꿈을 키우던 내게 고혈압이라는 모호한 증상은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정확한 병명으로 돌아왔다. 거래처에서 온 물건을 매장으로 옮기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간 그 이후부터 나는 일주일에 두 번 투석을 해야 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되었다.

만성신부전은 말 그대로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늘 몸이 붓고, 노폐물을 거르지 못해 독소가 쌓여 쓰러지는 등 쇼크가 일어나는 병이다. 몸도 몸이고 가난한 형편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하는 투석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건강 밖에는 내세울 것 없던 젊음인데 가장 큰 것을 잃었을 때의 좌절감은 뭐라 형용할 수 없었다. 내 손을 잡고 하늘이 무너져라 울음을 터뜨리시는 어머니 앞에서 내가 느낀 것은 절망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었다. 그러나 젊음을 무너뜨리기에는 절망이나 좌절보다는 희망이 더 컸나보다. 나는 정기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없는 내 병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대신 자영업의 길을 선택했다.

그것은 바로 적은 자본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분식집이었다. 일도 하면서 혈액 투석도 받고, 일주일에 10만 원이라는 병원비도 마련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음식을 하는 일은 그야말로 금기사항이었다. 만성신부전증은 물과의 싸움이다. 신장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을 먹어야 했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소량, 거기에 간은 거의 하지 않은 싱거운 음식만 먹어야 했던 것이다. 나는 안 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디 그런가. 매일 음식을 하며 음식 냄새를 맡고 또 몸을 움직이는 일이다보니 자연히 목이 더 탈 수 밖에.....가끔 불 꺼진 가게에 주그리고 앉아 생수통을 바라보며, 물 한 번 실컷 먹어 보고 죽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1년 6개월을 보낸 후 내 신장은 더 버텨내지 못하고 일주일에 두 번만 하면 되었던 투석을 세 번으로 늘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나는 가게를 접고 다시 처음 병을 떠났을 때로 돌아가 집에만 틀어박혀 신세를 비관했다. 왜 내 삶만 이렇게 더 고달파지는 것일까? 그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나에게 왜 이런 시련만 계속되는 것일까? 어머니가 듣지 못하도록 이불로 입을 틀어막으며 울부짖었던 그날의 밤들. 그 눈물의 간절함을 하늘이 알아챘을까?

저는 카센터 직원이 아닙니다!

매일 집에서 조금씩 세상과 멀어지는 나를 걱정한 친한 친구가 LIG손해보험에 다니는 사촌 형을 소개해주겠다고 찾아왔다. 어렵듯이 생각해봐도 보험설계사라면 시간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희망은 다시 나를 용기 내게 했고, 나는 친구의 사촌 형을 만나 이것저것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내 생각대로 시간은 자유로우면서도 돈은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단 하나. 입사를 하려면 소장과 면담을 해야 하고, 그러면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를 물을 텐데 그것이 걸렸다. 거짓 말을 해서라도 이 일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자세히만 물어보지 않는다면 겉으로 봤을 때 취업이 안 될 정도의 몸골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행히도 애매한 질문은 피해가고, 십 초에 한 번씩 입술을 깨물어 혈색을 돌게 한 후 인터뷰를 마치고 나는 스물여섯 살에 보험 세일즈맨이 되었다!

하지만 제대 후 바로 만성신부전증 판정을 받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던 내게 보험 세일즈는 그야말로 사막에서 오리털 파카를 파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영업의 기본도 모르던 터라 옷차림은 언제나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고, 손에는 팸플릿이나 약관은커녕 다이어리 한 권이 전부였다. 도무지 어디에서부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고 한 달을 보낸 후 나에게 처음 입금된 월급은 45만 원. 그나마도 누나가 자동차 보험을 들어줬기에 가능한 금액이었다. 처음 나에게 보험설계사의 길을 안내해주던 친구 사촌 형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한다면 수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냐. 100만 원이 될지, 30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 300만 원이 될지...’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이것은 결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20대, 그야말로 쇠도 씹어 먹을 나이에 만성신부전이라는 벽에 갇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대를 만난 것이었다. 이신바예바처럼 ‘인간 새’로 날 것인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벽의 맨 아래쪽에서 높이만 바라보다 죽을 것인지. 결정할 때가 왔다.

우선 고객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심부름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에 사람이 모일까, 궁리를 하다가 자주 놀러갔던 후배의 카센터가 떠올랐다. 후배가 차를 수리하는 바쁜 와중에도 고객들의 차를 이전 등록해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 차 정비하기에도 바쁠 텐데, 차 이전 등록하는 것 말이야. 내가 해주면 안 될까?”

“형! 그러면 나도 좋지!”

그때부터 후배의 카센터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이전 등록은 내가 직접 도와주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이전 등록은 물론 보험 가입 까지 자연스럽게 모두 나에게 맡아서 해달라고 하게 되었다. 후배의 카센터 덕분에 자동차 관련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고, 나는 신바람이 났다.

손님이 오면 차 앞 유리도 척척 닦고, 기다리는 동안 자판기에서 커피도 빼서 농담도 건네니 내가 카센터 직원인 줄 아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런 오해를 하기가 무섭게 나는 내 명함을 꺼내 주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저는 카센터 직원이 아니랍니다!

보험회사 직원이지요, 보험에 대해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새 신장을 받고, 새 심장이 뛰었다.

그렇게 카센터에서는 계속해서 조금씩이나마 실적이 있었지만, 장기보험 계약 실적은 한 건도 올리지 못한 달도 있을 정도로 나는 점점 슬럼프에 빠지고 있었다. 실적 없이 출근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담당 소장님께도 면목이 없어 차츰 출근도 뜸해지고 병원만 기운 없이 오고갔다. 그런 나에게 소장님께서서는 사무실로 호출명령을 하시고, 장장 세 시간 동안 면담을 통해 용기와 또 다른 희망을 주셨다. 우선 내 어깨부터 부여잡으시고는 젊은 사람 어깨 각도가 왜 이러나

며 앉히시던 소장님은 나의 어려움, 내가 가진 한계에 대해 하나하나 공감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셨고 또 내 의견을 묻기도 하시면서 방법을 찾아가고자 애를 쓰셨다. 사실 지금도 여러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또 대화를 나누지만 누군가와 세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의 고민을 듣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주기 위해 애쓰는 것은 정말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당시 소장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다. 다시 한 번 패기를 발휘해보라고, 아픈 몸 상태까지 숨기며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열정은 다 어디로 갔느냐는 채근이 그동안 나태했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날 이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리라 다짐했던 내게 정말 커다란 새로운 시작이 다가왔다.

누나의 신장 기증으로 나도 건강한 신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가족 누구에게도 선뜻 신장 기증을 말할 수 없었던 내 심정을 알았던 누나는 아이를 낳은 후 몸을 추스르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 적합성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수술 당일까지 누나를 보며 울기만 하는 나에게 누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보답하라는 말 밖에는 하지 않았다.

누나는 내게 신장을 준 것이 아니라, 심장, 아니 새로운 생명을 준 것이었다. 그로부터 50일 간, 고된 수술 회복 기간을 거치면서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있었다. 일단 늘 부어 있던 얼굴, 손과 발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색도 내 나이 또래 건강한 낮빛으로 돌아왔다. 전에 없던 자신감으로 어깨는 벌어졌고, 일단 옷차림부터가 달라졌

다. 캐주얼로 일관하던 것을 버리고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었다. 당장 눈에 띄게 실적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매일 출근하고 또 정확한 시간에 사무실에 돌아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이 결국 실적에 귀결된다는 사실도 알았다. 열정과 패기만으로 세상이라는 큰 벽을 뛰어넘으려 했던 이십 대의 나 “조봉래”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내 신장과 함께 과거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나는 새로운 심장과 함께 전문성과 건강을 갖춘 또 다른 “조봉래”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와 아이들이 나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핸드폰 좀 봐!” 이다. 불안해서도 아니고, 기다리는 전화가 있어서도 아니다. 사실 보험설계사에게 이미 보험을 든 고객이 전화를 하는 것은 십중팔구 어려운 일이 닥쳐서일 텐데, 그것을 바랄 리가 있겠는가? 단지 나는 고객이 나를 찾을 때, 내가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두려운 것뿐이다. 예를 들어 그때 그 밤에 내가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어땠겠는가? 나는 그런 만약이 두려울 뿐이다.

여름 장맛비가 며칠 동안 이어지던 열대야를 식혀주던 밤, 새벽 3시. 그날도 어김없이 핸드폰을 침대 바로 옆에 두고 잠들어있던 나에게 다급한 고객의 전화가 걸려왔다.

“조팀장님, 나 000이예요!”

“아, 예! 아니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어디십니까?”

나는 이미 일어나 양말을 찾는 중이었다.



“여기 경주 보문단지 근처인데, 차가 전복됐어요.
견인차부터 좀 보내주세요, 빨리요!”

바로 견인 서비스를 해놓고 재빨리 차를 몰고 고객에게로 달려갔더니 그 장대비 속에 고객은 혼자 비를 맞고 견인차만 기다리고 있었다. 전복된 차량은 유류 배달 차량이었고, 차가 뒤집히면서 기름을 실은 말통 50여 개가 모두 낭떠러지로 도로로 이리저리 굴러떨어져 있었다. 이 상태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사고 후 처리 미흡은 물론 더 큰 사고를 방조한 이유로 많은 벌금을 물게 될 터였다.

나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말통들을 집어 올리기 시작했다. 비 때문에 시야는 안 보이지, 거기다 통이 깨져서 기름이 흘러나온 말통은 미끄러워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다. 어찌어찌 말통을 일으켜 세운다고 해도 기름이 가득 든 무게는 아무리 성인 남자라고 해도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차 사고를 당한 고객의 힘을 빌릴 수도 없는 노릇. 나 혼자 죽을힘을 다해 말통을 집어 올리기 시작했다. 기름으로 옷은 다 얼룩이 지고, 신발과 얼굴 모두 기름 범벅이 되었다. 그렇게 20여 분 정도 사투를 벌이다보니 견인차가 도착했다. 우선 다친 고객을 태우고 바로 응급실로 향했고, 다친 부위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후 콜센터에 연락해 바로 지불 보증 요청을 했다. 간단한 검사를 마치고 응급실에 누워있던 고객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사코 나를 보내려고 했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리를 뜰 수 없었다. 다행히도 큰 이상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고객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나도 집에 왔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30분이었다.



전쟁터에서 맞는 새벽같이 정신없고 고단한 하루였지만, 그렇게 다급한 순간에 고객이 제일 먼저 나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에 나는 미소가 지어졌다. 보험설계사란 그런 것이 아닐까?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말이다. 물론 이 물음에 가족, 연인, 친구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지금 바로 나에게 달려와 일을 수습해줄 여건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 있듯, 그 예기치 못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보험설계사가 존재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예전에 영화배우 황정민씨가 주연한 영화 중에 [슈퍼맨이었던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그 영화를 보고 내가 늘 마음에 담아두는 대사가 있다.

“내가 이 줄을 잡아당기지 않았으면 거기 있었겠지.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와 있어. 미래가 바뀐 거지.”

남을 돕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야.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것.”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그리고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쇠문을 여는 것은 힘이 아니라 작은 열쇠라고.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돈을 벌어드주고,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말고 다른 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나는 일을 하면서, 그 속에 마음을 담음으로써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슈퍼맨이 될 수 있다. 비록 작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이제 이 느낌은 단순히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부가적인 장점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어쩌면 궁극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돌이켜보면, 경제적으로도 또 건강상으로도 내 인생의 큰 그림 속에서 전반부는 결코 평탄하지 않은 삶이었다. 그러나 누군가도 말하지 않았는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경사를 올라 고갯마루에 섰을 때만이 느낄 수 있는 바람의 달콤함.

그 바람의 달콤함이 없는 인생, 글썄 나는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갯마루는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내 이웃도, 내 친구도, 거리에 많은 사람들도 자신이 넘어야 할 고갯마루 몇 개쯤은 가지고 살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나 같은 사람들을 두고, 사람들의 위험을 담보로 거기에서 파생되는 두려움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라고 비난 아닌 비난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 생각에 동의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나는 내 직업이 그 고갯마루를 잘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설사 넘어지더라도 부축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자부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고갯마루를 인정하고, 그 길을 잘 넘을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살았으면 하고 바라본다. 나 역시도 그렇게 고갯마루를 넘고 산등성이를 지나, 지금 여기에서 달콤한 바람을 맞고 있다. 물론 다시 넘어야 할 저 먼 곳에 굽이진 길들이 보인다. 하지만 내가 내민 손길 한 번, 내가 받은 감사 두 번이 지금 걸어가는 길을 덜 힘들게 만들어 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조봉래. 슈퍼맨이고 싶은 사나이, 조봉래.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 달려가고 싶다.
바꿀 수 있는 미래가 거기 있을 것이므로, 쇠문을 여는 작은 열쇠를 들고 오늘도 나는 달릴 것이다.

